

동문·모교·포천사랑 파이팅

포천중·일고총동문한마음축제 성료

포천중·일고총동문회(회장 조성인)가 주최하는 2008 포천중·일고총동문한마음축제가 9월28일 포천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우 국회의원, 서장원 포천시장, 이종호 포천시의회위원장, 이주석, 이우형 경기도의원, 조돈창 경기도교육위원과 동문 등이 참석해 한마음축제를 축하했다.

조성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영농학생에게 전달한 송아지는 3만여 동문의 마음이며 건강 한 모습으로 은사님과 원로선배님 모두 한 자리에서 뵈게 되어 반갑다"며 "오늘 축제를 계기로 3만여 동문 모두 하나로 뭉쳐 아름다운 추억과 소중한 만남으로 10년씩을 젊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은사를 대표해 정동화 전 인천대학교 총장은 "많은 동문이 참석하고 장학금, 발전기금, 우수교사 사례 등 앞장서서, 특히 송아지를



포천중·일고총동문회가 주최하는 2008 포천중·일고총동문한마음축제가 9월28일 포천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증하는 가슴 물결한 장면을 보면서 그동안 조선 500년동안, 그리고 이후에도 번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포천시를 움직이는 중심세력으로, 나아가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을 배출하는 동문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규승 포천일고등학교 교장은 "동문회로부터 받은 장학금과 송아지는 학생들을 위해 유용하게 쓰였다"고 밝히고 "이곳 운동장에 인도잔디와 우레탄 트랙공사비로 8억2천만원을 포천시에서 지원하기로 해 내년 한마음 축제는 쾌적한 공간에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며 포천일고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우 국회의원은 "오늘 영농 학생에게 전달된 송아지를 보며 지금 막 정치를 시작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후원 포천시를 통일시대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도록 하

겠다"고 말했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포천시의 재정자립도는 34%에 불과해 이런 지립도를 채우기 위해 김영우 국회의원, 이주석, 이우형 경기도의원,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100일을 넘겨서 포천시를 반듯하게 이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포천시의회 의장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신 조성인 회장님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사회 발전과 모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각모 재경포천시민회장은 "해마다 동문축제가 질서정연하고 내외귀빈을 정성껏 모시는 것 보니 반갑다"며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축제는 개회식을 전후해 축구경기, 족구대회, 포천일고 풍물부, 관악, 지어리더 공연, 동문이 함께 하는 게임 및 레크레이션, 동문 장기자랑 및 보컬그룹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축제는 오직 포천중·일고만이 포천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타파하기 위해 재경 일고총동문회 회장단이 참석했으며 출신학교를 초월해 구성원 때동문회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스스로 공부하는 우리 아이 만들기

포천교육청, 2008 명품교육 학부모 연수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오정순)은 9월25일 오후2시 포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106명을 초청해 '스스로 공부하는 우리 아이'라는 주제로 2008 명품교육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명품학교 만들기 정책 홍보와 부모의 자녀학습 지도력 향상 교육을 통해 학부모가 명품교육을 이해하고 각급 학교의 협력적 학교문화 구축을 위해 관내 초·중·고교 학부모 106명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봉길 학부과장은 "명품교육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다양화, 특성화, 차별화된 교육실현과 학교교육의 자율성, 창의성 확보로 New, First, Best의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각급 학교는 학교 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 이름의 색깔이 발현된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정근 수원여대 평생교육원장은 '스스로 공부하는 우리 아이'라는 주제의 강의가 진행됐다.

연수에 참석한 학부모 P씨는 "명품교육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었지만 애매모호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 연수를 계기로 우리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서논술교육이 바로 명품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아이의 학습습관을 바로 잡아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연복 기자 uralism@nate.com

경북중, 제2회 수리제 성황리에 마쳐

경북중학교(교장 심동섭)는 9월 25일과 26일에 걸쳐 제2회 수리제가 체육대회 및 각종 전시회와 장기자랑 분야, 그리고 학부모들의 참여로 나누어 이틀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체육대회는 반별로 축구, 씨름, 줄넘기 등의 다양한 경기가 진행되었고, 전시 분야는 방과후활동과 계발활동 산출물들이 풍성하게 전시되었으며, 장기자랑 분야는 개인별 장기자랑과 미스경북선발대회 등이 진행되었고, 학부모님들의 풍물놀이와 빨리 댄스, 스포츠댄스 등이 선보였다.

또한 풍성한 경품추첨 행사까지



경북중학교는 9월25일과 26일에 걸쳐 제2회 수리제가 개최됐다.

이어졌는데 경북중학교 심동섭 교장은 "수리제가 2회로 이어지면서 날로 발전하며 행사에 참여한 경복인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행사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함께 공부해요

계고(稽古) 편 70

公子曰武王周公은其達孝矣乎심저 夫孝者는 善繼人之志하며 善述人之事者也나라 踐其位하여 行其禮하며 奏其樂하며 敬其所尊하며 愛其所親하며 事亡如事存이 孝之至也나라.

공자가 말하기를 무왕과 주공은 온 천하 사람이 모두 칭찬하는 효자다. 대체로 효도라는 것은 선인의 뜻을 잘 계승하고 선인의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선왕의 지위를 계승하여 그 예법을 그대로 수행 하며 그 음악을 연주하며 그 존경하던 이를 존경하며 그 친애하던 이를 친애하며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사람 섬김같이 하며 없는 이를 섬기기를 생존한 이 섬김같이 하는 것이 지극한 효도인 것이다 하였다.

주공은 문왕, 무왕의 공업을 찬양하고 또 선조들을 추존 하며 받들었다. 공자는 '지극한 효도'라는 표현으로 문왕과 주공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011-354-6485)

양주승
본지 자문위원의 고문

가유기고 정든 갈월중학교

처음에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초등학교와 다르다는 생각과 주위에 산들이 있는 백로들을 보고 기쁨과 설렘에 두근두근거렸다.

1학년 때는 학교 건물 내부 구조가 정말 신기했다. 초등학교 때 없었던 음악실, 기술실, 가사실 등과 같은 특별실들이 있다는 것이 그저 신기했을 뿐이다.

2학년이 되면서 1년 동안 보았던 학교에서 그런지 일상이 되어 있었다. 기술과정 실습시간에 가사실을 가게 되면 "야! 실습이었구나!"라는 생각만 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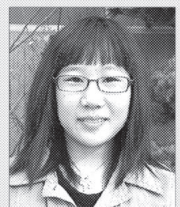
3학년이 되고 나서 곧 졸업할 한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생각하자 갈월중학교에 정이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졸업을 앞두고서 그런지 평소 애용하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과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과,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것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의 사친과 작품들이 눈에 띄게 많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전에 혼자서 우리 학교의 1층부터 4층까지를 돌아다니는 것이 있었다. 체육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 물러서 다녀서 그런지 좀 보이거만 했던 복도와 계단들이 나 혼자 걸으니 넓어 보이거만 한다. 체육시간에 선생님께서 운동장을 돌라고 하실 때는 그렇게나 넓어 보이거만 했던 운동장이 축구장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 왜 그렇게 운동장이 좁게만 보이는지 궁금하다.

갈월중학교를 졸업하려니 슬프기도 하고, 아쉽고 설렘하다.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앞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과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과,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것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이경수 학생기자 갈월중 3년

가유기고 빛속에 열린 가을 한마당 축제

포천초등학교(교장 정진권)는 9월25일(목)날 전교생이 모인 운동장에서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러 오신 내빈들의 박수 속에서 가을 한마당 축제를 이틀동안 열었다.

학기초에 정했던 대로 9월23일에 운동회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어제부터 꾸물꾸물 어두워지는 하늘이 걱정스럽더니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열었다가 닫았다를 반복하다가 선생님께 메시지를 보내 "운동회 어떻게 해요?" 하고 여쭈었더니 "날씨가 애매하니 수업준비만 운동회 준비를 모두 갖추고 등교하라"고 하셨다. 걱정하며 등교하는 내 뒤통수에 대고 엄마께서는 "걱정하지 마. 오늘 운동회 할 거야. 엄마도 있다가 갈게. 너네 학교는 무슨 날만 잡아 놓으면 비가 오더라. 그런데 행사에는 지장 없도록 금방 그치기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고 하셨다.

가을 한마당 축제는 오전 아홉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홉시가 넘어 가자, 하나 둘 부모님들이 오시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제 밤에 내린 비로 운동장 군데군데 고인 물을 쓰레기통으로 담아 치워야 했기 때문에 아홉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운동회는 열시가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었다.

드디어 개회가 선언되고, 지난해에 공동 우승을 하여 우승컵을 받았던 호랑이 편과 사자편의 대표가 나와 우승컵을 반환했다. 국민연례를 마치고 교장선생님께서 대회사에서, 학생들이 그동안 열심히 운동회 준비를 하느라고 수고했다고 하시며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기회를 통해 마음껏 뛰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하며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멋진 가을 한마당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 하셨으며 내빈으로 참석하신 서장원 포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하나 되는 마음으로 즐거운 운동회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과 함께 학부모님과 지역 주민들께도 옛날 어릴 때 맨발로 운동장을 뛰던 때를 회상하며 그때로 돌아가 한마음으로 즐거운 하루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등교 길에 엄마께서 "너네 학교는 무슨 날만 되면 비가 오더라"라고 하시던 말씀은 학부모 대표의 인사 말씀을 통해 이 기유를 알 수 있었다.

"옛날에 용이 되어 승천하려고 하는 아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잡아 주어서 결국 승천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용이 되지 못하여 화가 났는지, 슬픈 것인지, 그때부터 포천초등학교에 운동회 날만 되면 비가 온다."는 전설을 말씀해주셨다.

개회식을 마치고 축제가 시작되었다. 하늘은 계속 올 것 같은 표정

이고, 축제는 한 시간이 늦어진 만큼 서둘러 진행되었다.

우리 포천초등학교는 학년별로 체육복 색이 다르다. 보라 노랑 남색 주황 파랑 초록색의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벤치와 운동장 가에 쳐놓은 텐트에 색깔별로 나누어 자리를 잡고 앉았고 운동장 주변에는 빈틈없이 부모님들의 돛자리로 가득 차 있었다.

비 때문에 레일을 그릴 수 없는 데도 학생들은 앞에 보이는 결승 테이프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렸다. 달리다 쫓은 땅에 넘어지면, 흙투성이가 되어 지쳐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를 어찌." 하시며 걱정했지만 발뚱 일어나 다시 온 힘을 다해 뛰는 친구들을 보며 "그래, 저 정신을 가진 아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 나라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다." 하는 생각을 했다.

학년별 달리기를 하는 때는 얼마나 서둘렀는지, 여섯 명씩 나누어 준비 땅 하고 먼저 출발한 사람들이 20~30m쯤 가면 또 준비 땅 하는 바람에, 먼저 달린 4, 5, 6등과 다음에 달린 1, 2, 3등이 섞여서 4, 5, 6 등의 손등에 1, 2, 3등 도장을 찍어 준 숫자 못 할 일도 벌어졌다.

포천초등학교에 상냥하고 목소리 작고 밝기로 유명한 강미영 선생님께서 결승선에서 1, 2, 3등을 기리는 일을 맡으셨는데 오늘날만큼은 강미영 선생님도 힘껏 달리는 어린이들 만큼이나 힘껏 1등 2등 3등을 외치셔서 텐트에 앉아있는 내 귀에까지 소리가 들려왔다.

달리기 선수들이 정신없이 밀려오니, 후식 온힘을 다해 달린 학생들의 등수가 바뀌게 될까봐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기회를 통해 마음껏 뛰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점심시간까지도 기다려 주지 못해서 하늘에서는 또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둘러 운동회를 중단하고 조금 이른 점심식사를 하기로 했다. 비가 오는 탓에 부모님께서 갈아 놓으신 운동장의 자리에 서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고 학교 안의 복도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옆에 버너에 부대찌개까지 끓여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모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은 나 그 속에 들고 싶을 만큼 부럽고 보기 좋았다.

점심시간이 끝났는데도 하늘에서는 비가 계속 오락가락했다. 그래도 큰비는 아니어서 그냥 비를 맞으며 진행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는 단체 무용을 하기 위해 비를 맞으며 입장하는 자리에 서 있는 손자를 보고

"아이구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 아이구 왜 그렇게 세워놓는데." 하시며 안타까워하셨다. 산내에 달리고 움직이는 우리들의 몸 속에서 따뜻한 열기가 피어오르는데 어른들은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다.

축제에서 보여준 1학년의 꼭두각

시 무용은 귀엽고 감쪽했고,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6학년의 어귀여차 디 여자 부채춤은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

그동안 팽벌에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연습했던 5학년들의 파자마 파티도 "아이 귀여워." 하시는 부모님들의 칭찬을 들었다. 응원 오셨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빛속 운동회에 함께 참여하여 낯시 놀이를 즐기셨는데 낯시 대로 막걸리나 빈천통 등을 건져 올리시며 즐거워하셨다.

이지연 학생기자 포천초등학교 5년

스승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가 같다고 했는데, 오늘 선생님도 부모님들의 달리기 계주 한마당도 펼쳐졌다. 누리를 응원할까? 하다가, 비오는 운동회 날 낯시 학생들이 비를 맞을까 우리들은 텐트에 꼭꼭 숨기시고 선생님들은 운동장에서 내리는 비를 모두 맞고 계시는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선생님 편을 힘껏 응원했다.

그러나 나의 힘찬 응원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편이 한 발 뒤처지고 있었다. 편이 운동회 준비를 하시느라 지치셨나 보다.

학생들의 계주는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했는데 마지막에 고학년들의 계주가 시작되자 뒤에 계시기던 학부모님들이

"운동회는 계주가 꽃이지."라고 하셨다. 우리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호랑이 이겨라. 사자 이겨라." 목소리를 높여 응원했는데 결국 나와 다른 사자 편이 이기고 말았다.

사자편의 어느 학부모님께서 사자편이 많이 앞서가자 "호랑이 이겨라 호랑이 잘해라." 하고 외치셔서 "사자 편 어머니 아니세요?" 하고 여쭈었더니 "맞아, 그래도 계주는 앞섰다가 뒤졌다가 또 앞다가 뒤졌다가 해야 재미있어." 하셨다. 오늘 가을 한마당 축제에서는 아쉽게도 호랑이 편이 저서 사자 편에게 우승컵이 돌아갔다.

운동회를 하는 동안 계속 단상에서 지켜보시던 교장선생님께서 폐회사를 통해, 어제 밤에 비가 내려서 잠이 어려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런 날씨가 운동회에게는 더 좋았다고 하시며 무수히 운동회를 마쳐서 기쁘고 굶은 날씨에도 적극 참여한 포천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부슬부슬 내리는 빗속에서 도 학생들과 선생님도 부모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다가 되었던 가을 한마당 대 축제는 오오오래 추워오래 기억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난 내년의 비 안 내리는 맑은 가을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BEST 보육프로그램 14 프로젝트 접근법

유아의 흥미를 고려한 프로젝트 접근법으로 유아중심프로그램 운영

프로젝트란 '교사의 지도하에 개별유아, 소집단 유아, 또는 학급 전체가 책임을 지고 주제에 대한 심도 깊게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 중심의 단원중심 프로그램에서 유아 중심의 주제중심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접근법이다. 프로젝트는 어린이집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프로젝트 접근법의 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도입단계→진행단계→마무리단계로 구분되는데 도입단계에서는 주제를 제안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예비주제만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이라 하여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작은 종이에 연상되는 단어를 적어 그룹으로 분류하여 망의 형태로 재배치 하는 것이다. 브레인스토밍을 해 보면 유아들의 기발한 생각이 놀라움마저 든다. 흥미를 충분히 유발하여 알고 있는 부분을 쓰기, 그리기, 극화하기, 구성하기 등으로 경험을 표현하게 한다. 1단계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

2단계의 진행단계는 현장작업을 위한 준비, 현장견학, 현장견학을 다녀온 후의 발표, 전문가를 학급에 초청하여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현장견학을 통해 알고 싶은 질문 목록을 작성하고 질문에 대한

예상을 미리하기 등을 계획하여 현장학습을 떠나는데 유아들은 공장, 동물, 차량, 장비, 사람 등 각종 행사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는 유아들은 직접 접해보는 것보다, 보는 체험학습이 더 의미가 있는 유아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라 생각된다.

현장학습을 마치고 돌아와서 견학 결과에 대해 토론했던 것 있던 일에 대해 이야기 한다.

교사들은 대집단 토의를 길게 준비하지 말고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현장견학을 떠났던 날로 되돌아오면 어떤 활동은 화보를 통한 조사활동과 맛보기, 좋아하는 떡 그리기, 떡 만들기, 떡이 되기까지를 신체표현 하기, 떡 가게놀이, 방앗간 아저씨께 감사편지 쓰기로 충분한 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전문가를 초청하는 것도 프로젝트에서는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 지역에 맞추어 진행되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유아들의 흥미를 고려한 주제에 스스로 풀어가는 자기주도적인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011-9717-5206)

프로젝트는 유아들이 활동을 통해 표상한 활동결과물도 중요한데 전시를 통해 이루어지면 비행식적으로 친구들의 활동을 읽어보고 검토해 보고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유용하다. 프로젝트의 마무리의 마무리



김경선 관내어린이집 원장 kksn64@nmail.net